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437

2019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

대학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경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학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A Study of Studen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College English Course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경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학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지도교수 정 희 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경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경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희 정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차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ix

ABSTRACT x

Ⅰ.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3

2.1 외국어 습득과 교양영어 3

2.1.1 교양영어를 통한 외국어 습득 3

2.1.2 교양영어의 효과 4

2.1.3 국내 교양영어 선행연구 5

2.1.4 조선대학교 교양영어 개설 현황 8

2.2. 학습동기 9

2.2.1 통합적 동기 및 도구적 동기 10

2.2.2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 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2.2.1 자기결정성 이론 12
2.2.3 Keller의 학습동기 모형 14
2.2.3.1 ARCS모형의 배경 14
2.3.3.2 ARCS모형 구성요소 15
2.2.4 자기효능감 18

Ⅲ. 연구 방법 20
3.1 연구 대상 20
3.1.1 연구대상 학교 대학영어 현황 20
3.1.2 조사 대상 20
3.2 연구 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23

Ⅳ. 연구 결과 25
4.1 두 집단에 따른 대학 영어강의의 인식 차이 25
4.2 대학 영어 강의인식에 따라 두 집단 만족도 차이 26
4.3 두 집단의 강의 만족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32
4.3.1 내적동기 32
4.3.2 외적동기 36
4.3.3 학습동기 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 42

참고문헌 ····· 45

부록 1 ····· 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ARCS 모형 구성범위 16
표 2 ARCS 모형 하위 구성요인 17
표 3 연구 대상 21
표 4 자가 영어 실력 평가 22
표 5 심층인터뷰 문항 24
표 6 대학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이유 26
표 7 문항 별 만족도 차이 30
표 8 강의 만족도의 집단 차이 31
표 9 문항 별 내적동기 차이 31
표 10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6
표 11 문항 별 외적동기 차이 37
표 12 외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40
표 13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4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목차

그림 1 학습동기의 분류 13

그림 2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Studen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College English Course

Kyung jin Kim
Advisor: Jung hee Jung,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uden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college English course by English majors and non-majors.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1) What are the perception of the college English courses by English majors and non-majors. 2) Are ther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between English majors and non-majors due to the recognition of lectures? 3) Does the satisfaction of lectures of English majors and non-majors influence the learning motivation? To achieve this aim, 99 English majors' and 125 non major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via a participants' questionnaire and depth interviews. After recording the interviews of the respondents, it was analyzed and quoted. Regardless of major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y took the course because it was the required subject. However, non-majors' students had higher satisfaction and learning motivation for the courses than English majors. The English majors pointed out that the level of courses in college remained a basic knowledge and didn'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jor studies. On the other hands, non-majors mentioned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English, there is no enough lesson related to English in their majors. So they were highly satisfied that they could keep accessing on English.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습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 유창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인재 상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기관에 끊임없이 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 등 고학력기관에 이르기까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위한 외국어 습득 프로그램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 교육기관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를 가장 범세계적인 핵심 언어로 보고 공적, 사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영어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 세계 공용어 중에서 영어의 확실한 비중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을 연구하는 미국의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International기관이 2017년에 Ethnologue 잡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IL International은 각 언어들을 모국어로서 쓰는 L1 화자(speaker)들과 제 2의 언어로서 쓰는 L2화자(speaker)들로 구분 지어 비교하였으며 각 언어의 사용자의 합을 통계 내었을 때 영어가 11.2억 명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19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수학능력평가라는 입시 시험에 가장 효율적인 주입식의 일 방향적 수업을 주로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어교육은 문법, 독해 등에 초점을 맞춘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영어중심의 수업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김혜성, 임자연(2013)은 대부분의 변화는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과정에만 국한되어있고 대학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기에 대학 또한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와 더불어 학습자가 정규과정을 통해 성취하였던 영어 지식은 대학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전공에 상응하는 지식으로 응용 될 수 있도록 전공 맞춤형 영어수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해놔야 한다 말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는 모국어로 쓰는 국가를 넘어서 그 외의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인식하여 영어 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련 전공자들뿐 아니라 공대, IT,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지원 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전공 영어를 함양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지순, 유성호(2017)는 영어교육은 학습자의 전공과 무관하게 세계화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두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분야라고 일컬었다.

그렇다면 대학은 목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 대학은 커뮤니케이션능력, 공인영어시험 점수 향상,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영어환경 구축을 위한 다수의 원어민 교수 채용 등 효율적인 대학영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자원, 1996; 장현지, 2009; 김상경, 2014). 그러나 김상수(2009)는 대학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수나 주관부서의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능력 향상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교양영어는 단지 의무 학점 이수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전공 심화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다수의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대학 교양영어 강의의 대한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및 강의선택이유를 분석하고, 인식에 따라 각각의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대학영어강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맞는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는 향후 학습자의 전공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종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을 두고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대학영어강의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영어강의의 인식에 따라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만족도는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2.1 외국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과 교양영어

2.1.1 교양영어를 통한 외국어 습득

대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영어교육은 대학영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양영어, 일반영어, 실용영어 등의 이름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4가지 핵심 요소인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와 더불어 토익, 토플, PPT 수업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양영어를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습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 이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졸업 조건에 맞추기 위한 과목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영어 수업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구성되어있을까?

박준언(1997)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대학 영어 프로그램들은 뚜렷한 목표 없이 운영되고 있어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습자의 '필요'(necessities), '결핍'(lacks), '바람'(wants)에 따른 정확한 욕구와 의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대학 영어 과목 개발을 해야 한다(정동수 & 김해동, 2001). 현재 대학들은 각기 다른 전공자들에게 전공과 연계되고 전공 지식 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그 전공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 용어 등을 가르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괄적인 공동 커리큘럼으로 각기 다른 전공을 막론하고 형식적 대학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명백한 목적과 방향 없이 수요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지 않은 채 하향식으로만 만들어낸 대학영어는 학습자의 실질적 필요, 결핍, 바람을 충족시켜주긴 힘들며 이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대학의 편리를 챙긴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될 국내 및 해외 전공 시장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학영어 수업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혜경, 2016). 본 논문은 영어 전공자(영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과)와 비전공자(경상, 법학, 공대, 예술 계열 등)에 따른 대학영어 강의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한 학습동기 및 만족도를 광주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1.2 교양영어의 효과

방희경(2006)은 대학영어교육의 효과는 과연 학습자가 교양영어강의를 통해 변화 혹은 발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하였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진행되는 교양영어강의는 모든 전공을 아우를만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한빈(1980)은 교양영어의 목표는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상 할 수 있는 4가지의 효과로 ①전공영어 실력 향상 ② 전공과목 이해도 향상 ③ 전공 열의 향상 ④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첫 번째, 세계화의 추세의 맞춰 영어말하기 기회가 늘어감에 따라 대학 교양영어 강의를 통해 학습자의 전공영어실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 대학 교양영어의 최종적 목표는 학습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임을 볼 때 영어지식능력 향상은 전공내용 성취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전공에 대한 열의 향상은 학습동기와 관련되어 교양영어강의를 통해 얻은 자신감, 성취감등을 통해서 전공의 흥미가 자극돼 좀 더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게 되며 이것은 학업 증진의 결과를 얻게 된다. 네 번째, 만족도는 학습자가 교양영어의 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노력의 따른 결과와 목표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이다(Keller, 1987: 방희경, 2006, 재인용). 이성원(2004)은 학습자들이 교양영어강의에 만족감을 느낄 때 교양영어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 하였다. 따라서 교양영어강의의 질 평가를 위하여 Parasuraman, Zeithaml과 Berry(1985)가 서비스 품질 파악을 위해 개발한 10가지의 요인(“신뢰성”, “능력”, “반응성”, “예의”, “접근성”, “의사소통”, “안정성”, “수혜자 이해”, “신용성”, “유형성”)을 제시한 SERVQUAL을 활용 하여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조사는 “교수의 지적능력”, “교육내용”, “교수법 및 태도”, “software적 유형성” 네 가지 요인이 교양영어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켜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분석하여 최상의 수업을 제공해야함을 제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3 국내 교양영어 선행연구

19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학 교양영어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강독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사소통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으로 점점 변화해갔다. 배두본(1995)과 권오량(1995)은 대학 교양 연구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양교육'과 '실용영어' 두 가지로 구분 지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교양교육이란 1900년대 이전까지 유명 문학 작품을 통한 학습자의 문법, 독해 능력 개발에 힘썼던 교육이며 실용영어란 실질적 전문 영어 사용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자회화능력 개발에 힘썼던 교육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공급자 중심의 수업, 전공과 전혀 연계성이 없는 획일적 결여 수업, 취업에 도움 되지 않는 수업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많은 교양영어 개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송구선, 2008).

Park(1994)은 대부분의 대학 교양영어 수업은 교수 중심(teacher-centered)으로 학생들의 실제 목표와는 무관하게 셰익스피어, 존 던과 같은 유명 영국 작가들의 책을 읽고 분석하는 등의 이론중심의 수업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ELT(English-Language Teaching)를 서로 대립하는 보수적(conservative)관점과 진보적(progressive)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한 학교에 두 가지 이념이 존재하는 것은 수업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 하였다. 현재 한국 대학 교양영어 수업은 전통적 competence ELT에서 perfomace 중심의 ELT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 전공마다의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박준언(1997)은 대학 원어민 교수에 의한 의사소통 교양영어 운영방안을 분석하였다.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성적 결과, 학업성취도에 따라 8그룹의 분반으로 나눈 뒤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의 5단계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1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원어민 교수들에 의한 수업을 통해서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80%이상이 긍정적이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을 운영 할 독립적 체계가 부족한 점, 여전히 교양영어 수업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점, 영어 학습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연결되고 수준이 높아진 수업이 필요한 점 등을 제언하며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말하였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대학의 재학생, 교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의 개선을 위한 교양영어 개발 유형과 구성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순환과정(cyclical precess)과 욕구 조사(needs analysis)를 바탕으로 수강 동기 조사,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교양영어 수업 개선방안 조사, 졸업생 대상으로 한 조사, 총 세 단계에 걸쳐 7개월간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교양영어는 취업을 위한 도구적 목적과 흥미에 의한 통합적 목적을 적절히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1~2학년 때는 전공 시장 관련 경제 영어, 학문 영어, 예술 영어들을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고 3~4학년으로 진급 후 개인의 욕구에 맞춰 선택적으로 심화 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조정순(2002)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대학에 도입되고 있기에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고 교양영어 교육의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67개 대학 교수들과 15개 대학의 학생 응답자를 선출하였고 크게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첫 째, 소속 학교의 교양영어 수업 구성 및 의무학점 현황 둘 째, 교양영어 수업의 만족도 셋 째, 수준별 수업 등과 같은 새로 개편된 교양영어 수업 관련 인지도, 넷 째, 현재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및 희망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교양영어 수업에 만족한다고 약 69%가 대답하였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한 것을 보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보았다. 따라서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춘 오직 회화중심의 수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초급자를 위한 문법, 어휘 등 기초 영어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설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한 적극적으로 학습자 동기를 자극시켜 줄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극 질적인 교양영어 수업 개발을 위해 대학마다 교양영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집중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토대로 강사 채용 및 커리큘럼 구성할 수 있기를 제언하였다.

송미정과 박용예(2004)는 서울대학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주관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인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결과와 말하기, 쓰기 시험 결과에 따른 효과 점검 연구를 시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TEPS 성적 결과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교양영어를 각각 대학영어, 고급 영어, 기초영어의 이름으로 3개로 나누어 놓았으며 세 수업의 공동 목표는 학생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네 가지 능력을 증진시킴에 있다. 총 114명의 교양영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으며 교양영어 수업을 통한 한 학기 동안의 영어회화 및 쓰기 실력 증진 여부를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 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였다. 회화 실력 t검정 결과에 따르면 사전 시험 평균은 2.47에서 사후 시험 평균 3.43으로 향상되었으며 유창성 부분 에서는 사전 시험 평균 2.30에서 사후 시험 평균 3.32로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는 토론, 발표, 프로젝트 활동들의 수업 구성 요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양 영어 교육에 따른 쓰기 실력 향상 결과 또한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총체적인 부분에서 사전 시험보다 거의 1점이 상승한 4.12의 높은 점수를 내었으며 이는 문법, 담화 구성력, 문단 구성력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작문 능력 향상에 효율적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양영어 교육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 증진에 영향을 끼쳤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유정민(2009)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전공별로 총 305명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영어 과정에 대해 만족도 및 교수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학은 꾸준히 학습자 중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그 수준이 만족스런 결과에는 못 미쳤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양영어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 정도 파악 항목에서 '교양영어는 전공과 관련된 기초내용을 다루어야한다'의 응답률이 제일 높은 것을 통해 교양영어는 전공과 연관된 통합적 기능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학습자 요구에 맞는 지속적인 수업개발을 하여야겠다.

조재옥(2014)은 지금까지 대학 교양영어 커리큘럼과 교수의 질적 부분 개선을 위한 연구는 많았지만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정의적 측면 연구는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수업에 반응하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짐을 지각하고 동기 유발 수업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총 60명의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Keller의 ARCS 동기유발 모형을 적용한 영화로 진행된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동기 전략을 연구하였고 수업 실시 전, 후에 치워진 테스트의 결과를 비교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ARCS 동기유발 모형 적용한 교양영어 수업은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의 모든 학습자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전략을 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고 적절한 학습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 의욕을 세워주는 요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으로 살펴본 효율적 교양영어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함께 학습자의 학습태도, 흥미, 동기, 만족도 등의 정의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송구선, 2008). 이영은(2018)에 따르면 정의적 성과는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긍정적인 정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대학 교양영어는 교육적 질적 향상을 위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분석을 정확히 파악해 내재적 동기를 자극 시키고 전공에 맞는 수준을 고려한 커리큘럼 구성이 요구된다.

2.1.4 교양영어 개설 현황

본 연구 대상 대학교의 기초 주요교양영어 강좌는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크게 총 3가지인 대학영어, 생활영어 1,2, ESL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대학영어는 각각 2학점에 주 2시간 수업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토대로 학습자의 영어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며 전교생 공통 교양 필수 과목이다. 각 분반 당 정원은 60명 이하이며 학과별로 분반하여 수강하도록 한다. 두 번째, 생활영어 1,2는 각각 1학점 주 2시간 수업으로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인 전임교원과 함께 진행되는 교과목이다. 각 분반별 정원 25명이며 생활영어1,2 또한 학과별로 분반 편성된다. 세 번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연구 대상 대학교의 영어심화교육 모델로써 ESL 1, ESL 2로 개설된다. 각각의 강좌는 3학점에 주 15시간이며 하루 3시간씩으로 분배하여 수업한다. ESL의 목표는 원어민 전임교원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 영어 사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주 5일 3시간씩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작문을 교정 받고 받아쓰는 등의 집중적 운영방식을 통하여 학습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향후에 영어능력시험 점수도 향상됨을 예상 할 수 있다. ESL 1과 ESL 2는 학습자의 영어레벨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있다. ESL 1은 초급영어회화 수준으로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며 단순한 문장 구조만을 사용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SL 2는 중급회화 수준으로 일상회화가 가능하며 비유적 표현과 Idiom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를 위해 구성되어 있다. 수강대상은 전학생이지만 영어영문학과, 영어과, 자유전공학부는 필수적으로 ESL1, ESL2를 수강해야하며 그 외 학부(과)는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ESL1 이수자는 대학영어를 ESL2 이수자는 생활영어 1,2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본 학교 내 위치하는 글로벌 하우스(Global House)기숙사에서 GH-ESL 1, 2가 진행되고 있다. 기숙 형 영어 몰입교육으로서 다문화 환경 체험과 영어 사용의 일상화 증진을 위한 정원 6명의 초미니 수업으로 실질적인 면대면 교육으로 주 4일 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2 학습동기

외국어 학습을 포함한 모든 배움의 시작에는 다양한 인과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있다. 김미영(2016)에 따르면 우리 국내 영어수업의 상황은 자국어를 통해 제 2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수업환경이 지배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자국에서 외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교나 사설에서의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실 상황 속에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첫 번째로 교사의 지식, 능력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습자들을 참여시키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줄만한 동기부여 유발 능력을 지니는 것도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 중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였다. 또한 Brown(1980)은 적절한 동기부여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외국어 습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였다. 학습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즉, 학습동기가 유발되면 그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 끝에 전문성을 띈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단기간 효율적인 완전한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중요 요소로 대두 된다.

같은 의미에서 주미란(2012)은 언어학습에서 동기(motivation)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달성 욕망과 적극적인 태도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는 노력의 정도와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적인 언어학습 의욕을 고취시기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동기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 말했다. 또한 Brown(1994)은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 중에서 적절한 학습 동기 부여는 제 2언어습득에 강한 추진력을 주며 성공적인 언어 습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하여 학습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 교양영어 수업은 전공과의 연계성이 적어 학습자들의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참여 동기 또한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업설계가 필요하다(김재옥(2014),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변인에 따른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학습동기에 따른 자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2.2.1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 및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

사회교육모형(Socio - educational Model)을 바탕으로 Gardener & Lambert(1972)에 의해 처음 소개된 통합적 동기 및 도구적 동기는 효과적인 제 2 언어습득을 위해 교수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동기 유발을 해야 할지 12년이 넘는 시간동안 캐나다, 미국, 필리핀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제안해 주었다. 동기는 학습자의 태도에 따라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나눠진다. 통합적 동기란 학습자의 언어 습득의 목표는 모국어로서 외국어를 쓰는 언어 집단에 대한 관심과 그 집단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 혹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그 문화로 직접 통합되고자 할 때 실천되는 것이다. 즉, 그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으로 가령, 해외 연수, 유학 중에 있는 학습자들이 학교 적응을 위해 목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도구적 동기란 심리학적으로 배움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 된 것이 아닌 학습자 개인의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가치인 취업, 언어학적 성취감 획득 및 일시적 필요(temporary needs), 재정적 보상(financial rewards)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발생 되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Gardner & Lambert, 1959). 많은 Lambert와 Spolsky(1969)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적 동기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습자에게서 더 발견됐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Yasmeen Lukmani(1972)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습득 실험에서는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의 성적이 더 우세했음을 볼 수 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다. 비슷하게 Gardener와 Lambert, 이 두 학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캐나다에서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로써 프랑스어를 습득하게 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Gardner와 Lambert는 학습자들의 지적 능력, 수업태도 보다 동기 유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수업실험을 통해 Gardner와 Lambert는 도구적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던 학습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움에 대한 흥미가 서서히 줄어들었으나 그에 반해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언어학습에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통합적 동기를 가졌던 학습자들이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에 비해 좀 더 성공적으로 프랑스어를 습득하였음이 도출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실험에서는 앞 서 진행했던 캐나다에서와는 반대로 도구적 동기를 지닌 학습자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언어 습득이 되었음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Gardner와 Lambert의 주장은 실험 배경, 대상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는 서로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영어를 배우러 간 아랍인은 대학 입학을 위해 영어를 배워야하는 도구적 동기와 미국 친구를 사귀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통합적 동기가 서로 균형을 맞춰 최종적으로 영어 습득에 다각적으로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것이다(Brown, 1980).

2.2.2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및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학습 동기를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이다. 내재적 동기란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느낀 것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결과 보다는 자발적으로 궁금증에 의거하여 호기심 충족 및 자아 개발 향상과 같은 내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동기 부여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때 학습자는 외적 압박 및 보상을 위해 행동할 때 보다 더 도전적이고 흥미롭게 수반되어 행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외재적 동기는 확실한 결과 및 보상을 얻기 위해 수반되는 활동으로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외재적 가치, 예를 들어 자격증 획득, 승진, 보수 인상 등에 중심을 두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행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할 때 지니는 동기라고 정의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즉, 이들은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흥미를 가져 학습으로 실천되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 외부의 보상 획득과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학습으로 실천되는 동기를 외재적 동기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동기들은 상생하는 관계일까 경쟁하는 관계일까? 이에 대한 물음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Brown(1994)은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학습자 목표 달성에 더 효율적이며 학습자에게 자신감과 추진력을 불러일으켜준다 주장하며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한 내재적 이유로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들은 약한 내재적 이유를 지닌 학습자들에 비해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학습 그 자체를 즐기며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Newman, 1990). 이와 같이 1980년대에는 외재적 학습 동기 보다 내재적 학습 동기를 통해 학습이 일어났을 때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외재적 동기를 통해 학습할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이효웅, 1996). 이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Ryan과 Deci는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율성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으로 이어줄 수 있다고 보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제시하였다.

2.2.2.1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1980년대 중반에 소개된 자기결정이론은 학습자의 활발한 역량 발휘를 위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생득적 보편적 특성에 따라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충족 되었을 때 학습동기가 가장 향상되었다고 보았다(Ryan, Kuhl & Deci, 1997). 즉, 이 이론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외부 억압과 강요 없이 자발적 호기심 및 재미에 의한 내적 통제에 의해 유발 되었을 때 자기결정성이 높아짐을 주장하였다. 최유정(2015)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선택, 결정 할 수 있게 될 때 자율성(autonomy)의 충족됨을 느끼고 이에 따라 발생된 만족스런 결과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competence)을 느끼게 해주며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된 교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의 상호신뢰까지 확장되어 관계성(relatedness) 욕구까지 충족 될 수 있음을 말했다. 자기결성이론을 총 4가지의 소 이론인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 CET), 유기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 OIT), 인과지향성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 COT),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Needs Theory : BNT)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거시이론(macrotheory)이다. 네 가지의 소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기결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 즉, BNT를 중심으로 내재적인 동기로 학습이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보상이 예정이 되면 내적 동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적합한 사회 환경적 조건에 놓여 있을 때 내적 동기가 효율적으로 증가 된다고 본 인지평가이론과 내적, 외적동기를 나누어 개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재적 동기를 내면화시켜 서로 상호작용 해야 함을 나타내는 유기적 통합이론을 소개하였다(위키피디아 인용).

<그림 1> 학습 동기의 분류 (Ryan, R. M., & Deci, E. L.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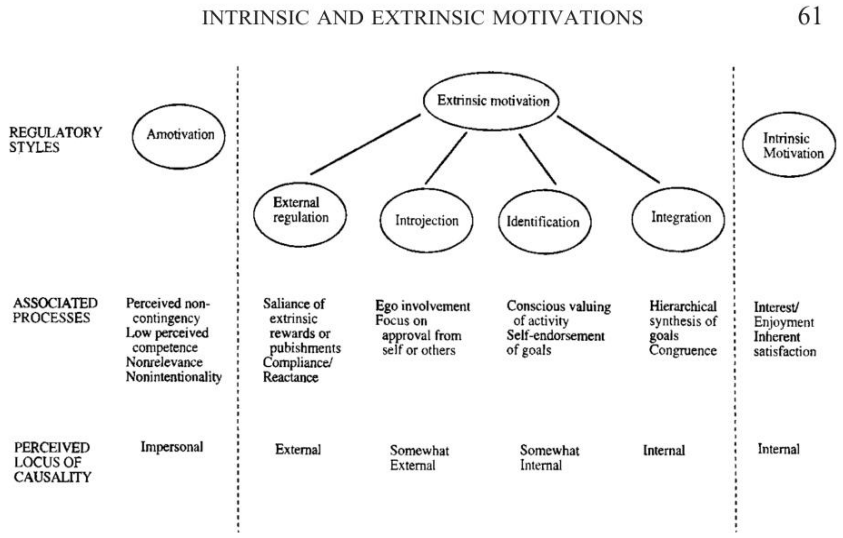


FIG. 1. A taxonomy of human motivation.

https://redtea.kr/?b=3&n=5659

자기결정성의 연속성 분류표에서는 크게 무동기(Amotivation), 외재적 동기의 4가지 하류 분류인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gulation)과 내재적 동기로 구분 지었다. 무동기는 자기결정 행위의 의지가 없는 상태로 행동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상태인 학습자를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적 조절은 외부의 보상이나 칭찬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과소재를 외부적인 것으로 보며 개인의 경험은 통제되어 있으며 소외된 것으로 본다.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다소 외적인 인과소재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며 죄책감이나 수치심 회피 및 자아 존중감 확보를 위해 행동하는 경우이다. 한편 부과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앞의 두 가지와는 다르게 행동의 가치를 개인 스스로가 정하고 본인의 가치와 부합되는 경우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다소 내적인 인과소재인 것으로 인식 한다. 마지막 통합은 가장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자기 탐색(self-examination)을 통해 가치와 및 욕구와 일치될 때 발생되며 내재적 동기 특성과 비슷해 보이지만 외부적 보상을 얻기 위해 발생되는 행동이기에 여전히 외적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6개의 서로 다른 학습 동기 분류들은 같은 연속선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배타적인 관계 보다는 내외재적 자극을 통해서 무동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Ryan & Deci, 2000). 따라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이분법적로 사고로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보완하는 존재들로 보아야 한다.

2.2.3 Keller의 학습동기 모형

2.2.3.1 ARCS 모형의 배경

Keller(1984)은 전형적으로 동기(motivation)는 예측불가능하고 변하기 쉬운 요소라 교수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 말했다. 교수들은 학습자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감을 지녀야 하고 학습자는 그 수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교수가 높은 지적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수업에 몰입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수들은 “I know my subject, but I’m no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ally an entertainer?"라고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Keller는 이러한 논란에 따라 많은 동기 개념과 이론들을 간단한 유의미한 모형으로 종합하고 체계적인 동기유발 수업을 위한 ARCS 모형을 설계하였다.

1984년 Keller에 의해 처음 소개된 ARCS 모형은 학습동기 유발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기에 관한 많은 개념과 이론들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교육적 학습 동기 유발 강화를 위한 학습 전략들을 소개하였다. 셋째, 체계적 교수 설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Keller, 1987). 스스로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기대 가치 이론(Expectancy - Value theory)을 기반으로 한 ARCS 모형은 기대(expectancy)와 가치(value) 2가지 범주에서 총 4가지로 확장시켰는데 가치는 흥미(interest)와 관련성(relevance)으로 세부화 되었으며 기대, 그리고 결과(outcomes)가 추가되어 총 4가지의 모형이 만들어졌다. Keller는 이러한 범주들을 토대로 4가지 학습 동기 유발 전략들을 정리하였으며 후에 각각의 특색을 더욱 강조하고 편리한 두음문자를 생성을 위하여 주의(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2.2.3.2 ARCS 모형 구성요소

Keller(1987)는 앞서 언급했던 ARCS 모형의 구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첫째, 주의집중(Attention)은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교수의 적절한 자극(stimuli)에 따라 학습자는 집중하게 된다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로부터 주의를 얻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건 그 주의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며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학습자의 무관심과 과잉행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대 목표라 언급하였다. 김미례(2017)는 학습자의 학습 유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탐구적 활동을 제공하는데 주의집중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둘째, "왜 이 수업을 들어야할까?"라는 학습자의 질문에 교수들은 학습자의 실질적 필요인 '취업'과 연관하여 그 관련성(Relevance)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친화욕구(need for affiliation)는 그룹 협동 활동과 관련되어 충족 될 수 있고 성취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need for achievement) 또한 수업 내 제시된 학습 목표 달성 과정 중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하여 개인적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것은 수업과 인지적으로 관련되어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자신감(Confidence)은 학습자가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감의 정도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비례하기에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 내 과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감이 적은 학습자는 실패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됐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통제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강화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과정에 대한 보상이 확신 될 때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하지만 그 보상이 교수 통제 하에 있고 앞서 학습동기에서 언급하였던 내재적 동기 또는 외재적 동기 중 어떤 동기를 자극하였는지에 따라서 학습자의 만족도(Satisfaction)은 달라진다. 따라서 교수는 과잉통제 하지 않고 학습자가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내적 보상 및 외적 보상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표 1>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요인의 정의 및 질문을 정리하여 놓았고 그 하위 구성 요소는 <표 2>로 요약된다.

<표 1> ARCS 모형 구성범위 (송상호 & Keller, 1999)

요인	정의	질문
주의(Attention)	-학습자 흥미 끌기 -학습에 몰입 할 수 있도록 학습자 호기심 유발하기	어떻게 학습자의 경험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까?
관련성(Relevance)	-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개인적 목표와 요구 관련짓기	어떻게 학습자의 경험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줄까?
자신감(Confidence)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성공적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키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까?
만족감(Satisfaction)	- 결과에 따른 보상을 통하여 학습 성취감 강화하기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이뤄낸 결과에 대한 성공적 느낌을 강화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표 2> ARCS 모형 하위 구성요인 (송상호 & Keller, 1999)

주요요인	하위요인	질문
주의(Attention)	지각적 각성	학습자 흥미 유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은 무엇이 있을까?
	탐구적 각성	어떤 질문, 활동이 학습자의 궁금증을 자아 낼 수 있을까?
	변화성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수업에 어떤 변화를 줘야할까?
관련성(Relevance)	목적 지향성	어떻게 학습자의 실질적 목적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모티브 일치	학습자에게 심리적으로 만족 시켜줄 활동은 무엇일까?
	친밀성	학습자의 기존 경험과 수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자신감(Confidence)	학습요건	학습자에게 성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감을 어떻게 제공 할 수 있을까?
	성공기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적 통제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만족감(Satisfaction)	내재적 강화	수업을 통해 자기 발전에 이를 수 있도록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
	외재적 보상	성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무엇이 좋을까?
	공정성	학습자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

2.2.4 자기효능감(self - Esteem)

Carl Rogers(1951)은 자아개념이란 스스로를 자각 할 수 있도록 조직된 지각(perception)이라 하였다. 자신을 지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후에 자신의 목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였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정의적 요인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Coopersmith, 1967). 즉,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끝마친 뒤 스스로 계획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해보는 평가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의 행동에 긍정적 신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성공적인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활동 해결과정에 자신감을 갖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학습에 몰입도가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노력을 적게 기울이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과제를 끝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친구는 자신의 능력과 그로 인해 인정받았음을 느끼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고 부족했던 부분만을 보며 스스로를 질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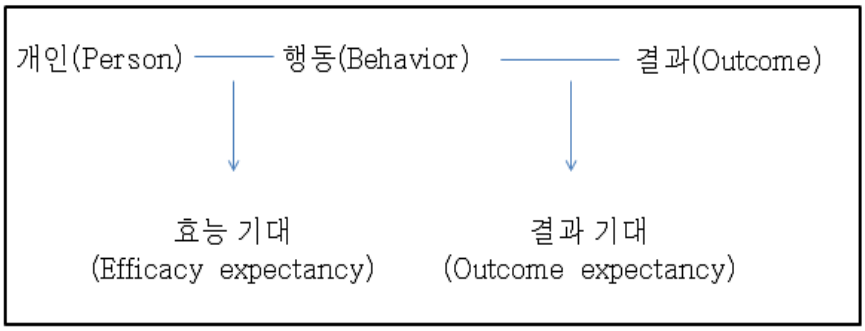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효능기대(efficac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pectancy)와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로 구별하였다. 효능기대란 성공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능력의 판단 및 신념이며, 결과기대란 자신의 판단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기대이다. 예를 들어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탈 수 있다는 기대는 결과 기대이며 대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대가 효능 기대이다.

<그림 2> 효능기대와 결과기대(Bandura, 1977)



또한 Brown(1980)은 자기효능감은 성격과 인지적 특징(cognitive trait)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을 수 없음을 지적하며 개개인의 사회적 상호 작용, 지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등을 평가 하는 상황적 자기효능감(situational self-esteem), 특정 상황 안에서 평가되는 업무 자기효능감(task self-esteem)등으로 구분지어 말하기도 하였다. 상황적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 지적능력 혹은 공감능력, 유연성 등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업무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 안에서 행해지는 특정 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육 환경에서는 여러 교과목에 관한 자기 효능감 평가를, 스포츠 환경에서는 특정 운동 기술 등이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을 학습자가 해결과정에서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대학영어강의의 학습도 동기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연구 대상 학교의 현황 및 조사대상을 기술하고 연구 도구와 자료처리방법을 소개한다.

3.1 연구 대상

3.1.1 연구대상 학교 대학영어 현황

본 연구의 연구대상 대학교 대학영어 강좌는 전교생 공통 교양필수과목으로 각각 2학점에 2시간으로 배정되어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과별로 분반하여 강좌를 수강하게 되며 매학기 교수에 따라 다른 교재가 선정된다. 연구대상 해인 2018년을 기준으로 대학영어는 교양교육 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기초교양에서 좀 더 세부화 된 '창의 및 소통'영역으로 바뀌었으며 바뀐 이수체계는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재 조선대학교의 대학영어강좌는 총 58개의 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원어민을 포함한 교수진을 통해 한국어 및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 정원은 평균적으로 60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교수는 조선대학교의 기초교양교육 목적인 3C 핵심역량지수(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배양을 근거로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성적산출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실험·실습, 발표, 기타 등의 항목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3.1.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재학생 중에서 2018년도 2학기까지 대학영어강의를 수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에 상관없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략 1개월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총 224명의 학생이 응답해주었다. 응답자 중에서 영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과를 영어전공자로 채택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전공자들을 비전공자로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영어전공자 99명과 비전공자 125명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선 본격적 대학영어강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 앞서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수업시간 외에 대학영어공부에 할애하는 시간, 학점 혹은 아직 학점을 받지 않았다면 예상 학점, 자가 영어실력평가의 기본적인 개인 배경정보를 실시하였다. 학점 혹은 예상학점은 응답자의 추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측정에서 제외시켰으며 자가 영어실력평가표는 <표 4>에서 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점과 자가 영어실력평가를 제외한 각 구분 별 분류 분포도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연구 대상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73	32.6
	여성	151	67.4
학년	1학년	93	41.5
	2학년	42	18.8
	3학년	38	17.0
	4학년	51	22.8
전공	영어 전공	99	44.2
	비 영어 전공	125	55.8
영어공부 할애 시간	전혀 없음~30분	84	38.0
	30분 이상~1시간 미만	76	34.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0	18.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8	3.6
	3시간 이상	13	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총 224명의 응답자들을 토대로 성별, 학년, 전공, 영어공부 할애 시간의 개인적 배경 상황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32.6%, 여성 67.4%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 학년은 1학년 41.5%, 4학년 22.8%, 2학년 18.8%, 3학년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은 영어전공 44.2%, 비 영어전공 55.8%으로 비전공자 더 높게 나타났고, 영어공부 할애 시간은 “전혀 없음~30분” 38.0%, “30분 이상~1시간미만” 34.3%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18.0%, “3시간 이상”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4>는 응답자들이 현 시점에서 영어실력을 스스로 평가한 능력 분포이다.

<표 4> 자가 영어 실력 평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영어 실력 평가	① Speaking	2.80	0.88
	② Listening	3.20	0.90
	③ Reading	3.24	0.79
	④ Writing	2.81	0.94
전체		2.41	0.70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의 자가 영어 실력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총 4가지의 분야를 ‘매우 못 한다’, ‘못하는 편이다’, ' 보통‘,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는 편이다‘의 5가지 척도로 나눠 조사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영어실력 자가 평가는 Reading 파트에서 3.24±0.79로 스스로의 능력을 가장 높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평가하였으며, Speaking 파트에서 2.80±0.88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Writing 파트 또한 2.81±0.94로 Speaking 파트와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독해 구문 즉, Reading에 비해 Speaking과 Writing에 가장 자신 없어 함을 인지 할 수 있다.

3.2 연구 도구 및 자료처리 방법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학습동기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하여 배부되었다. 그러므로 임의 표집 된 이들의 응답은 조선대학교 대학영어 수강생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설문지는 설문문항 개발을 위하여 Gardener(2004)의 태도 및 동기 종합검사인 AMTB(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를 활용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선행연구 이효웅(1996), 정동수, 김해동(2001), 송미정, 박용예(2004), 강순희, 서혁 외 4인(2007), 최은경(2013), 박효숙(2014), 김진희(2014), 이윤지(2015)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르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척도화 하였다. 설문지는 기본 인적사항 및 배경을 묻는 6개의 질문과 4파트로 구성되어 총 58개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설문지 내용은 처음으로 학습자 개인 인적사항 질문으로 성별, 학년, 전공, 수업시간외에 대학영어공부에 할애하는 시간, 학점 및 예상학점, 영어실력 자가진단을 묻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학영어에 관하여 A파트는 대학영어강의 수강 이유를 10개 문항, B파트는 대학영어강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한 태도 및 동기를 묻는 내적동기 10개 문항, 외적동기 10개 문항, C파트는 강의 수강 후 만족도를 묻는 20개 문항의 폐쇄형 질문과 조선대학교 대학영어 과목으로 개설되길 희망하는 과목과 아쉬운 점 및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후 무작위로 전공자 10명 비전공자 10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 후 한글파일로 기록하였고 그 뒤 분석하여 인용구로 작성되었다.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3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기술통계, 단순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음을 밝힌다. 심층인터뷰는 문항은 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 <표 5>와 같다.

<표 5> 심층인터뷰 문항

인터뷰 내용
1. 조선대학교 교양영어강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2. 학교 영어 수업을 통해 귀하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3. 대학영어 수업을 통해 전공영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4. 대학영어를 통해 전공과의 연계성을 느꼈다면 무엇입니까?
5. 대학영어 수업에서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무엇입니까? (발표 및 토론 ,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중심 설명수업)
6. 학교에서 수강하는 영어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7. 영어를 학습할 때 언제 흥미를 잃습니까?
8. 영어를 학습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9. 조선대학교 교양영어의 수업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조선대학교 교양영어강의에 대해서 제안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조선대학교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교양영어 인식 및 수강 선택 이유에 따른 만족도 및 학습동기를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 만족도, 학습동기의 세 가지 범주에서 비교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4.1 두 집단에 따른 대학 영어강의의 인식 차이

현재 재학생들의 대학영어강의 수강하는 목적 및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10가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5가지 영역에서 문항에 맞게 학생 스스로 인식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두 집단의 결과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영어전공자는 총 평균은 3.41±1.10점, 비전공자는 3.29±0.97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보통이상으로 대학영어강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중에서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가장 높은 이유로는 문항 '2. 필수과목이기 때문에'에서 영어전공자 4.45점, 비전공자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항 '1. 의무학점 이수'에서도 영어전공자 4.43점, 비전공자 4.30점으로 1번, 2번 두 문항이 다른 수강이유문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공과 무관하게 두 집단 대부분 학생들의 대학영어강의 수강 목적은 단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영어전공자가 문항 5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3.10±1.22), 문항 6 '영어 능력의 향상'(3.70±1.10), 문항 8 '전공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3.37±1.20), 문항 9 '높은 학점'(3.21±1.24), 문항 10'영어 환경 익숙'(2.63±1.37)에서 강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전공자가 문항 3 '자기 계발'(3.27±0.88), 문항 4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에 필요해서'(3.32±1.03), 문항 7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2.82±1.05)에서 강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점수차이를 통해 영어전공자의 선택문항들이 비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습득 자체에 초점을 두며 이를 전공으로 확대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싶어 하는 인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전공자는 졸업 후 취업 또는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 등 목적에 기반 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영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재학생들의 대학영어강의 수강 목적 및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이유

문항	전공자		비전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의무 학점 이수	4.43	.66	4.30	.83
2.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4.45	.69	4.36	.74
3. 자기 계발	3.21	1.12	3.27	.88
4.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선택에 필요해서	3.23	1.20	3.32	1.03
5.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3.10	1.22	2.87	1.00
6. 영어 능력의 향상	3.70	1.10	3.55	1.00
7.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2.80	1.22	2.82	1.05
8. 전공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	3.37	1.20	2.69	1.03
9. 높은 학점	3.21	1.24	3.20	1.03
10. 영어 환경 익숙	2.63	1.37	2.50	1.10
전체	3.41	1.10	3.29	0.97

4.2 대학 영어 강의인식에 따른 두 집단 만족도 차이

영어전공자, 비전공자 집단의 대학 영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20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문항 '1. 대학영어 담당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는 수업을 성의껏 준비하였다.'가 전공자 3.86점, 비전공자 3.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문항 16 '교수님의 강의는 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가 3.71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14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수준은 적절했다'가 3.54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공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의 수업준비태도와 교수법에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된다. 인터뷰에서 또한 앞서 언급했던 문항 선택이유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인터뷰대상자들은 수업시간에 토론, 게임,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지루하지 않았으며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원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양영어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조별수업, 토론 같은 되게 많은 것들이 진행됐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안했었거든요... 근데 반에 열 몇 명밖에 없어서 발표기회가 금방금방 왔어요. 해야만 하는 상황이 처해지니까 하게되더라구요... 또 교수님이랑 재밌는 게임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하는 거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밖에서 원어민이랑 이야기 하는 건 너무 비싸서...(웃음)
>
> (전공자 1)

>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원서였거든요.. 원서는 대학생이 접할 수 있는 책이기 보단 원서, 미국 초등학생이 배울 거 같은... 원서 같은 책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그림도 많았고 원서를 통해 배우니까 뭔가 자부심도 들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늘었구요. 그리고 수업 전에 교수님이 항상 그날 배우는 주제랑 관련된 영상이나 속담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5분 정도 같은 조원끼리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후에 교수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수업에 들어갔었는데 처음엔 수업이랑 관련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참여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책 내용이랑 이어지더라구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수업에 더 집중이 잘됐었어요.
>
> (비전공자 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공자는 대학 교양영어에서 진행된 다양한 교수법을 언급하며 토론, 게임 등을 통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학습 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소규모 수업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발표해야하는 상황을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였으나 이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비전공자도 수업교재는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으며 원서로 공부했던 점에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인터뷰를 통해 앞서 언급했던 설문문항 중 문항 '1. 대학영어 담당교수는 수업을 성의껏 준비하였다.', '14.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수준은 적절했다', '16. 교수님의 강의는 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와 일치한다. 비전공자에서는 문항 13 '대학영어 반 인원수는 적당하였다.'가 3.59점으로 비슷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항 7 '나는 계속 자발적으로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할 생각이 있다.'가 3.55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문항 6 '대학영어강의는 전공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전공자2.85점, 비전공자 3.30점으로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문항 5 '대학영어강의는 나의 졸업 후 진로선택 및 취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와 문항 17 '대학영어수강이 의무가 아니라도 수강할 의향이 있다'에서 각각 비전공자 3.22점인 반면 전공자의 점수는 2.90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에 대한 이유 또한 다음 심층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인터뷰 문항 3번 '대학영어 수업을 통해 전공영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에 대한 전공자, 비전공자의 대답을 인용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교양)영어를 수강한다고 해서 전공과 크게 관련이 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너무 쉽고 기본적 이였거든요. 교양은 한 강의로 스피킹, 문법 등을 다 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짧고 얕게 배우는 느낌이라면 전공에는 각각 따로 수업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각각 파트에) 할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양영어에서는 전공에 대한 향상을 바라지는 않고 그냥 필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거라 안 들어도 되는 거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
>
> (비전공자 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공자는 교양영어의 수준이 너무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단지 의무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상대적으로 전공수업에 비해 너무 기초적인 부분만 얕게 다뤄주어서 전공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자발적으로 교양영어를 수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학영어수강이 전공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전공자 점수가 비전공자에 비해 훨씬 낮았던 점과 일치한다. 반면 비전공자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 같은 비전공자들은 영어에 대한 갈망이 (웃음)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어를 계속 요구하는데 전공에서는 영어를 전혀 다뤄주지를 않으니... 그래서 교양영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전공은 식품영양학인데 전공에서는 영어가 딱히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제 2외국어에서 1등이니까 영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계속 박혀있어서... 전공에서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거를 교양으로서라도 채우려고 들었어요. 덕분에 계속 영어를 까먹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비전공자 3)

비전공자의 인터뷰내용을 보자면 사회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공에서는 전혀 다뤄주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교양영어를 통해서 꾸준히 영어를 접할 수 있었던 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공과 영어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후 교양영어 수업을 통해서라도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였다. 이는 대학 교양영어를 자발적으로 수강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비전공자의 점수가 전공자 점수에 비해 높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학영어강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문항 분석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문항 별 만족도 차이

문항	전공자		비전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대학영어 담당교수는 수업을 성의껏 준비하였다.	3.86	.91	3.60	1.06
2. 나는 개설된 수업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48	.97	3.49	1.01
3. 나는 대학영어강의의 다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34	.94	3.34	1.07
4. 대학영어강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98	.89	3.27	1.10
5. 대학영어강의는 나의 졸업 후 진로선택 및 취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90	.97	3.22	.96
6. 대학영어강의는 전공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2.85	1.00	3.30	1.01
7. 나는 계속 자발적으로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할 생각이 있다.	3.10	1.01	3.55	.91
8. 대학영어강의는 전공과목 학습의욕과 흥미를 높여주었다.	3.02	.87	3.40	.97
9. 영어강의 수강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실력이 향상되었다.	3.18	.75	3.37	.98
10. 대학영어강의 수강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다.	2.92	.95	3.20	1.09
11. 교수진의 전문성, 자질, 교수 방법은 만족스러웠다.	3.57	.93	3.46	1.03
12. 나는 영어강의 수강 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적어졌다.	3.08	.78	3.26	.98
13. 대학영어 반 인원수는 적당하였다.	3.71	.85	3.59	.94
14.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수준은 적절했다	3.54	.93	3.54	.88
15.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내용은 흥미롭고 재밌었다.	3.31	.93	3.34	.91
16. 교수님의 강의는 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3.71	.88	3.51	.88
17. 대학영어수강이 의무가 아니라도 수강할 의향이 있다.	2.90	1.05	3.22	1.13
18. 대학영어의 과제물은 강의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되었다.	3.41	.86	3.43	.92
19. 대학영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3.47	.87	3.48	.98
20. 나는 다음 학기 대학영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3.05	.93	3.16	1.06
전체	3.27	.91	3.39	.9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두 집단의 대학영어 강의 인식에 따른 전체 문항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차이를 점수화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8>에서 알 수 있다.

<표 8> 강의 만족도의 집단 차이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t
대학영어 강의 인식	긍정	영어 전공자	4.22	0.57	25	2.985*
		영어 비전공자	3.76	0.39	14	
	보통	영어 전공자	3.32	0.63	51	-0.950
		영어 비전공자	3.31	0.53	84	
	부정	영어 전공자	2.81	0.78	23	-0.776
		영어 비전공자	2.96	0.57	27	
	전체		3.33	0.70	224	·

* $p < 0.05$

두 집단의 대학영어강의에 대한 만족도차이를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5가지 척도로 나누어 선택하게 하였다. 그 중에 '매우 동의함', '동의함'을 긍정으로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부정으로 보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영어 강의 인식이 긍정(t=2.985, p=0.005)에서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학영어 강의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영어 강의 인식 중 긍정에서는 영어 전공자(4.22±0.57), 보통에서는 영어 전공자(3.32±0.63), 부정에서는 영어 비전공자(2.96±0.57)이 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두 집단의 강의 만족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수강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동기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분류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동기마다 10개씩 총 20개의 문항을 통하여 학생들의 대학영어강의 수강동기를 조사해보았다.

4.3.1 내적동기

대학영어강의 수강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대학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및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내적동기의 전체적 평균은 5점 척도 문항에서 영어 전공자 3.35±0.97점, 비전공자 3.62±0.97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의 내적동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 문항 별 내적동기 차이

문항	전공자		비전공자	
	M	SD	M	SD
1. 나는 대학영어강의는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 속에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3.35	1.01	3.44	1.00
2.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생각한다.	3.97	.89	4.19	.90
3. 나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서 성적보다는 그 과정에 만족한다.	3.13	1.00	3.26	1.03
4. 나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3.52	.88	3.93	.88
5.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09	1.00	3.38	1.01
6. 나는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권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지고 싶다.	3.39	.97	3.82	.92
7. 나는 대학영어강의는 영어 능력 및 전공지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74	.91	4.01	.78
8. 나는 결과에 대한 우려보다 영어를 배우는 그 자체를 중시 한다.	3.18	.95	3.41	1.00
9. 전공에서 영어강의 수강은 의무화 돼야한다.	3.18	1.08	3.71	1.01
10. 나는 수업 중 접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2.95	1.01	3.03	1.13
전체	3.35	.97	3.62	.97

두 집단 모두 교양영어 수강하는 내적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문항 2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생각한다.'에서 전공자 3.97점, 비전공자 4.19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공과는 무관하게 두 집단 모두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원하며 실용적 영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문항 7 '나는 대학영어강의는 영어 능력 및 전공지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 전공자 3.74점, 비전공자 4.01점으로 높았고 문항 4 '나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가 전공자 3.52점, 비전공자 3.93점으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특이하게 전체 설문문항 항목에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높은 내적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한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무래도 전공이 영어교육이다 보니까 (수강 후에) 눈에 보여 지는 성과가 중요했어요. 만약 전공이 영어가 아니라면 저도 그냥 공부했다는 거에만 의의를 뒀을 거 에요. 하지만 전공이 영어와 매우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건 결과적으로 학점이잖아요. 다른 과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었고 그냥 수업을 즐기기에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
> (전공자 2)

영어교육학과 4학년인 인터뷰대상자는 전공이 영어이기 때문에 교양영어 수업 그 자체를 즐기는 것 보단 학점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문항 8 '나는 결과에 대한 우려보다 영어를 배우는 그 자체를 중시 한다.'에서 영어 전공자가 3.18점으로 비전공자가 3.41점이였던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반대로 비전공자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은 글로벌시대잖아요. 여행가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번역기 없이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구요. 결국 외국인들 만나면 독해나 문법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공에서는 외국인을 전혀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교양영어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교수님이 원어민이셨어요. 또 교양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되다보니 영어를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깨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수업 끝나고 실제로 쓰는 회화표현들도 기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이 남고 간단한 영어 문장정도는 말할 수 있겠더라구요. 솔직히 학점이 좋지는 않았는데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비전공자 4)

비전공자로 경영이 전공인 인터뷰대상자는 영어 능력에서 회화 스킬 향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유롭게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고 실용적 표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를 교양영어 수업을 통해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문항 5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수강 한다'에서 비전공자가 3.38점으로 3.09점인 전공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줬던 것과 일치한다. 또 다른 같은 전공의 비전공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보여줬다.

> 모든 학문에 영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공에서 따로 경영영어를 배운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기회가 처음이였어요. 심지어 소규모 수업이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할 기회는 있었어요... <중략>...교양영어 수업에서 원어민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책으로 수업하지 않으시고, 막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가르치려고 하시더라구요.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도 없어지고 대화를 이끌어주셔서 좋았구, 제가 들었던 수업은 참여자가 원어민 교수님께 질문을 해야 수업이 끝났었어요. 수업에 관한 질문이나 자신에 대한 아무런 질문이든 상관없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었어요.

(비전공자 5)

이처럼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전공에서 다뤄주고 있지 않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하지만 교양영어 수업을 통해 원어민 교수와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고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닌 실생활에 가능한 표현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내적동기측면에서 비전공자가 전공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가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비고
		B	표준오차	베타			
영어 전공자	상수	1.852	0.214	·	8.657	0.000	$R=0.660$ $R^2=0.436$ $F=74.888$ $p=0.000$
	강의 만족도	0.532	0.061	0.660	8.654	0.000	
영어 비전공자	상수	1.898	0.275	·	6.915	0.000	$R=0.442$ $R^2=0.195$ $F=29.823$ $p=0.000$
	강의 만족도	0.449	0.082	0.442	5.461	0.000	

영어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내적 동기에 43.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74.888, p=0.000)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8.654, p=0.000)는 종속변수인 내적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비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내적 동기에 19.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29.823, p=0.000)하였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5.461, p=0.000)는 종속변수인 내적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4.3.2 외적동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외적동기의 전체적 평균은 5점 척도 문항에서 영어 전공자 3.39±0.99점, 비전공자 3.58±1.02점을 나타냈다.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의 외적동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 동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문항 별 외적 동기 차이

문항	전공자		비전공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 나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88	.82	4.03	.87
12. 나는 앞으로 내 전공 학습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36	1.04	3.98	.89
13. 나는 앞으로의 시험(TOEIC, TOEIC SPEAKING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58	1.00	3.63	.95
14. 나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66	1.02	3.74	.98
15. 나는 남들이 모두 공부하는 학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3.28	.96	3.50	1.07
16. 나는 영어 학습측면에서 남들이 나를 우수하게 봐주길 원한다.	3.18	.92	3.67	1.01
17. 내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다.	3.55	1.04	3.62	1.06
18. 나는 영어강의 수강은 최대 목표는 장학금이다.	3.12	.95	3.03	1.14
19. 나는 영어강의 수강 목표를 타인이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좋다.	2.83	1.07	3.07	1.11
20. 나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을 까 마음이 불안하다.	3.46	1.04	3.54	1.11
전체	3.39	0.99	3.58	1.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두 집단 모두 문항 11 '나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에서 전공자 3.88점, 비전공자 4.03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학영어 강의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강 선택 및 이유를 묻는 문항 '2. 필수과목이기 때문에'와 '1. 의무학점 이수'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 제 전공은 식품영양인데 전공에서는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제 2외국어에서 1등이니까 영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계속 박혀있어서.. 전공에서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거를 교양으로서라도 채우려고 들었었어요.
>
> (비전공자 6)

> 저는 영어가 전공이니까 영어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고 봐요. 영어는 취업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해서도 필수요소잖아요. 졸업하고 이력서 낼 때 높은 토익점수는 당연하고 또 승진을 하는데도 토익스피킹 같이 Speaking 성적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전공을 영어영문학과로 정한 데도 이런 상황이 한 몫 했어요.
>
> (전공자 3)

두 집단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영어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앞으로의 미래, 취업을 위해서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문항 14 '나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문항 13 '나는 앞으로의 시험(TOEIC, TOEIC SPEAKING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 한다.

다음의 인터뷰에서 전공자는 전공수업에 비해 교양영어 수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너무 쉬운 기초내용만이 의미 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전공에 필요한 고급 어휘 및 문법 스킬을 배울 수 없어 전공과의 연계성을 거의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문항 '12. 나는 앞으로 내 전공 학습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를 수강한다.'의 비전공의 만족도 점수가 3.98점인 반면에 전공자가 3.36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전공자들은 교양영어에서는 굳이.. 자기 실력을 뽐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교양영어는 필수니까 듣는 거지 전공과 너무 실력차이가 나서 열심히 해야한다는 의지가 별로 안 생기더라구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점을 계속 다시 반복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문법에서 그랬는데... 전공에서는 쓰는 능력이 중요해서 고급 문법 및 어휘 스킬이 요구됐는데 교양영어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쉬운 기초 문법만이 계속 반복돼서 크게 활용하진 못했어요.

(전공자 4)

외적동기 설문 문항 중에서 문항 '16. 나는 영어 학습측면에서 남들이 나를 우수하게 봐주길 원한다.'또한 전공자 3.18점, 비전공자 3.67점으로 앞서 언급했던 문항 12번 다음으로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 속 비전공자는 전공에서 영어와 관련된 수업을 희소성을 언급하며 교양영어에서 좋은 학점을 얻는 것은 회화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100퍼센트 영어로 회화로 수업하다는 자체는... 되게 고난이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양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회화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더라구요. 저는 원어민과 수업을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양영어에서 전공자들은 그게 흔할지라도 저 같은 비전공자들은 기회가 극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양영어는 제 전공 이외에 플러스로 추가학습을 하는 거라고 느껴져요. 교양영어를 잘하면 전공 플러스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되니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됐어요.

(비전공자 7)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가 외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해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외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비고
		B	표준오차	베타			
영어 전공자	상수	2.069	0.235	·	8.809	0.000	$R=0.558$ $R^2=0.312$ $F=43.890$ $p=0.000$
	강의 만족도	0.447	0.067	0.558	6.625	0.000	
영어 비전공자	상수	2.034	0.273	·	7.436	0.000	$R=0.423$ $R^2=0.179$ $F=26.743$ $p=0.000$
	강의 만족도	0.423	0.082	0.423	5.171	0.000	

영어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외적 동기에 31.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43.890, p=0.000)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6.625, p=0.000)는 종속변수인 외적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비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외적 동기에 17.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26.743, p=0.000)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5.171, p=0.000)는 종속변수인 외적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학습동기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3>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비고
		B	표준오차	베타			
영어 전공자	상수	1.961	0.172	·	11.403	0.000	$R=0.709$ $R^2=0.503$ $F=98.116$ $p=0.000$
	강의 만족도	0.489	0.049	0.709	9.905	0.000	
영어 비전공자	상수	1.966	0.224	·	8.776	0.000	$R=0.506$ $R^2=0.256$ $F=42.289$ $p=0.000$
	강의 만족도	0.436	0.067	0.506	6.503	0.00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학습동기에 50.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98.116, p=0.000)하였다.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9.905, p=0.000)도 종속변수인 학습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비전공자의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학습동기에 25.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F=42.289, p=0.000)하였다. 그러므로 독립변수인 강의 만족도(t=6.503, p=0.000)는 종속변수인 학습동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대학영어강의의 전반적인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따른 대학영어강의 인식 및 강의 선택 이유와 그 인식에 따라 두 집단이 대학영어강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런 두 집단의 만족도는 향후 학습자의 전공 학습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응답으로 요구분석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학영어강의의 모형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3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대학영어강의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영어강의의 인식에 따라 영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강의만족도는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각 질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학영어강의 수강이유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0가지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5점 만점으로 척도 화 하였을 때 영어전공자 3.41점, 비전공자가 3.29점으로 두 집단 모두 보통이상으로 대학영어강의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영어강의 수강선택이유로 '필수과목이기 때문에'와 '의무학점 이수'를 뽑았다. 이를 통해 대학영어강의는 학생들의 자발적 수강 보다는 졸업을 위해 필히 들어야만 하는 피동적인 수업형태의 모습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의 대학영어강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0가지의 설문문항을 기술통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영어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적절한 수준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재를 통한 교수의 수업방식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 만족도 문항의 평균점수가 전공자 3.27점, 비전공자 3.39점으로 비전공자가 전공자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자면 전공자는 대학영어의 수업수준이 기초지식에 머물러 있어 전공 지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비전공자는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선택에서 영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의무학점인 대학영어강의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어서 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두 집단의 만족도 차이가 수강 동기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 10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T-test결과 5점 척도 문항에서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내적, 외적 동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졸업 후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회화위주의 대학영어강의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비전공자가 모든 척도 화된 내적, 외적동기 문항점수에서 전공자보다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전공자는 전공이 영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에 높은 학점을 받아야하는 압박감과 전공영어수업에 비해 대학영어에서는 전공심화스킬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낮은 동기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비전공자는 원어민과 접할 기회와 실생활 표현을 배울 수 있었던 점에서 대학영어에 긍정적인 태도였다. 따라서 대학영어강의의 학습 동기는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연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3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학영어강의 개설을 통해 그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들은 졸업 후 직접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 대비반 개설을 원하기도 하였고 모든 영역의 학습보다는 Speaking에 초점을 두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공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영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학은 대학영어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의 실질적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글로벌 시대 속 급변하는 사회에서 꾸준히 수업에 변화를 도모하며 학습자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춘 수업 개설이 필요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모든 학습자들에게 천편일률적 수업이 아닌 그들의 전공에 입각한 차별적 수업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대학영어강의와 전공수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은 모든 전공 학습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전공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심화된 전공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수업을 세분화시키고 뚜렷한 목적을 두어 학습자의 전공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금과는 다른 교육환경 개설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지방의 한 대학만을 지정하여 대학영어강의의 학습 동기 및 만족도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의 정의적 인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약이 있다.

둘째, 설문의 응답자들의 성별, 학년, 전공 등 기본적 배경 비율이 고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영어 전공자 응답자의 비율은 여학생 151명(67.4%), 남학생 73명(32.6%)으로 여학생이 월등히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인문학, 사범, 외국어계열의 특성상 학과 내 대부분의 비율이 여학생임을 통해 이유가 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대학의 대학영어 강의의 특성상 재학생들은 공통된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를 통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영어 강좌를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공통 교양필수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영어 강좌는 교수들의 개인적, 주관적 견해에 따라 커리큘럼, 교재, 성적산출방식 등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학영어 강좌 평가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순희, 서혁, 신상근, 이종원 등,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pp.637-656, 2007.

김미영(2016), EFL 학습자의 학습동기, 수업만족도 및 영어능숙도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76권0호, 84

김미례(2017), 대학생의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ARCS 평가모형의 타당화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2017.12, 77-91(15 pages

김상경(204), 대학 교양영어교육 선진화를 위한 "S" 대학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제 14권 제 6호, pp.101-120

김상수. 2009.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김성혜, 임자연(2013), 대학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현대영어교육 제14권 제2호, 2013.6, 263-290 (28 pages)

김진희(2014), 영어 전용강의와 한국어 전용강의 수강 대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영어 학습동기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16), 수요자 중심의 교양영어 운영 방안 연구 - H대학 예체능계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2016.6, 73-92 (20pages)

권오량.(1995).한국의 영어교수 방법과 교수방법론 연구의 변천. 영어교육, 50(2),107-131

나윤경(2013). 대학생들의 영어 강의 경험 정도와 수업 만족도, 학습 동기, 학습 전략과의 상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정미. (2016). 교양영어 만족도와 효율성 연구: 학생과 담당교수 인식 비교 중심으로. 언어과학, 24(1), pp.47-65.

문지순, 유성호, (2017) 예체능 계열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60권 0호

백성주(2012), 영어 비전공 대학생의 영어향상을 위한 정의적 요인 연구 : 학습동기, 불안 및 교수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배성혜(2007).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수업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희경(2006), 대학 영어진행강의에 대한 학생인식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효숙(2014), 전문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준언. 1997. 원어민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 운영결과분석. 영어교육, *52*(1), 161-183.

배두본(1995).한국의 영어 교육학의 발달영어교육, 50(2), 7-45.

송미정, 박용예(2004),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 -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 영어교육 제59권 제2호, 2004.6, 179-211 (33 pages)

이윤지(2015), 대학의 영어 전공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Courses, 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은, 2018, 대학교양 영어수업의 협동학습이 영어말하기 능력향상과 정의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 vol.18, no.10, pp. 306-319 (14 pages)
이예식,임홍미,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General English Education(중등교육연구, Vol.53 No.3, [2005]
이성원(2004), 교양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영어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영어교육연구 제16권 1호 , p. 203~222
이효웅, 한국 중 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 한국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 제51-2집, 1996, pp. 3-33.
이병기(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9 No.3 p.311-332
우여름(2018), 영어 학습동기가 학습몰입 및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기부여방식의 조절효과 :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정민(2009),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 동국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정동수,김해동. 2001. 대학의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연구.『영어교육』56.4, 265-292.
조재옥, 2014, ARCS 동기유발 모형을 적용한 대학 교양영어 학습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 8권 제 6호 pp.111-141
주미란(2012), 대학 신입생의 전공 및 학습 성과별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연구, 영어영문학*21, 25*(3)
최유정(2015), 학습동기 촉진을 위한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체험영역 지시문 개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경(2013), 대학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ndura, A. (1977b).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row n, H . D .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 Englew ood Cliffs, N J: Prentice H all, 1994.
Deci,E.L.&Ryan, R.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Deci,E.L.(1995). Why we do what we do understanding self-motivation. New York: PenguinBooks.
Gardner(2004)의 태도/동기 종합 검사(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AMTB)
Gardner, R. C.(2004).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 International AMTB Research Project for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R
G ardner, R. C., Sm yth, P. C., Clem ent, R. and G liksm an, L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2, 1976, pp. 198-213.
John Keller, "Motiva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Vol.2, No. 4, 1981
John Keller,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motivational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Vol. 10,No. 3, 1987
John Keller, Katsuaki Suzuki, "Application of the ARCS model t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urse ware design"
Newby, T. J. (1991). Classroom motivation: Strategies of first-year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195.
Park. N. (1994), Issues and trends in Korea's college-level English language teaching, *Language Research, 30, 297-321*
Parasuraman, A., Zeithaml, V., & Berry, L.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 *Journal of Marketing. 49(3).* 41-50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Ryan, R. M. and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54-67.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Richard M. Ryan and Edward L. Deci, 25(2), 225-237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대학영어강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영어강의의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인식 / 태도 / 만족도 총 3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자의 설문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영어의 발전을 위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김경진

● 다음은 귀하의 개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시거나 기술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3. 귀하가 속한 단과대학 및 전공을 써주십시오.

(　　)대학 (　　)전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수업시간 외에 대학영어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전혀 없음~30분
② 30분 이상 ~ 1시간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미만
⑤ 3시간 이상

5. 귀하의 대학영어 학점은 무엇 입니까? 아직 학점을 받지 않았다면, 예상 학점을 적어주십시오.

(예, A+, A0)

( )

6. 현 시점에서 귀하의 영어실력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매우 못 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 한다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귀하가 수강했던 대학영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은 수강한 과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여러분이 현재 교양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이유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의무 학점 이수					
2.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3. 자기 계발					
4.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선택에 필요해서					
5.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6. 영어 능력의 향상					
7.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8. 전공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					
9. 높은 학점					
10. 영어 환경 익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여러분은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영어강의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대학영어 담당교수는 수업을 성의껏 준비하였다.					
2. 나는 개설된 수업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나는 대학영어강의의 다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 대학영어강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대학영어강의는 나의 졸업 후 진로선택 및 취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 대학영어강의는 전공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7. 나는 계속 자발적으로 대학영어강의를 수강할 생각이 있다.					
8. 대학영어강의는 전공과목 학습의욕과 흥미를 높여주었다.					
9. 대학영어강의 수강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실력이 향상되었다.					
10. 대학영어강의 수강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다.					
11. 교수진의 전문성, 자질, 교수 방법은 만족스러웠다.					
12. 나는 영어강의 수강 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적어졌다.					
13. 대학영어 반 인원수는 적당하였다.					
14.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수준은 적절했다					
15. 대학영어 수업 교재의 내용은 흥미롭고 재밌었다.					
16. 교수님의 강의는 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17. 대학영어수강이 의무가 아니라도 수강할 의향이 있다.					
18. 대학영어의 과제물은 강의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되었다.					
19. 대학영어 강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0. 나는 다음 학기 대학영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여러분은 영어강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 편입니까?(동기)

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태도 및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내적동기					
1. 나는 대학영어강의는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 속에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생각한다.					
3. 나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서 성적보다는 그 과정에 만족한다.					
4. 나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5.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6. 나는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권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지고 싶다.					
7. 나는 대학영어강의는 영어 능력 및 전공지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결과에 대한 우려보다 영어를 배우는 그 자체를 중시 한다.					
9. 전공에서 영어강의 수강은 의무화 돼야한다.					
10. 나는 수업 중 접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외적동기					
11. 나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12. 나는 앞으로 내 전공 학습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13. 나는 앞으로의 시험(TOEIC, TOEIC SPEAKING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14. 나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15. 나는 남들이 모두 공부하는 학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강의를 수강한다.					
16. 나는 영어 학습측면에서 남들이 나를 우수하게 봐주길 원한다.					
17. 내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8. 나는 영어강의 수강은 최대 목표는 장학금이다.					
19. 나는 영어강의 수강 목표를 타인이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 좋다.					
20. 나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을 까 마음이 불안하다.					

❖ **대학영어 과목으로 어떤 종류의 과목이 개설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조선대학교 대학영어 수업의 아쉬운 점 및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서술하여주십시오.**

→ 조선대학교 대학영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경진 올림

Collection @ chosun